

피차별부락의 문해운동 - 역사와 과제 - 우치야마 카즈오(국제문해 10년와 일본의 문해문제, 일본 사회교육학회편, 도요칸출판사, 1990년)

3. 문해운동이 지향하는 것

「나는, 학교에 갔을 때, 차별당했어」 - 후쿠오카에 있는 어떤 문해교실의 여성이 한 말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냉엄하며 그 의미는 무거운 것이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삶」 속의 차별의 현실이 있었다. 그것을, 학교에 가지 않았어도 좋았다고 표현할 만큼, 차별과 억압에 가득찬 학교와 교육이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해학교의 존재는, 무엇보다도 글과 말을 빼앗긴 부락차별의 산증인이며, 「의무교육보급을 세계 1위」라는 낙인 아래에서 「전후 민주교육」에 대한 통렬한 고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해운동이, 이러한 차별의 현실에서 생겨나, 그에 저항하는 운동으로서 조직되어 온 이상, 이 운동이 지향하는 것도 명확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실천활동으로부터, 해방의 자각을 높이고, 인간변혁을 목표로 하는 문해운동의 의의와 목적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글과 말을 빼앗긴 부락차별의 산 증인으로서의 실천이다.」

문해학교는 말하자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학교이다.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모습에, 입술을 깨문 적도 있었다」 (문해작품) 라는 현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도 여전히 문해학교를 필요로 하는 차별의 현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소위 「죽을 만큼 일해서, 남은 것은 병과 빚뿐이었다」 고 말하는 어머니들의 힘든 차별의 역사, 「학교는 우리들에게 형무소 같은 곳이었다」 라는 어린이들이 보는 차별교육의 현실. 이 역사와 현실이 문해학교를

만들도록 한 것이며, 그 자체가 차별교육에 대한 냉엄한 고발일 것이다.

(2) 「빠앗긴 글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투쟁하는 해방사상을 형성하는 실천이다.」

문해운동은, 자신이 왜 글을 모르는가, 아니 왜 모르도록 강요당해 왔는가, 라는 글을 알 권리를 빼앗긴 이유를 밝혀내, 그것이 자신을 억압해 온 차별과 관계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부락차별과 차별교육에 의해 빼앗긴 글은,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 글을 모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글을 주려고 하지 않은 정치와 사회가, 그리고 그러한 교육이야말로,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해운동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보고, 스스로의 사회적 입장을 자각하고, 부락차별운동에서 생성되는 사상이 형성된다.

(3) 「학습과 생활을 결합하고, 인간해방의 투쟁을 목표로 하는 실천이다.」

빠앗긴 글을 되찾는 활동인 문해학교의 학습은, 무엇보다도 우선 차별의 「차」, 부락의 「부」, 해방의 「해」로부터 시작된다고들 한다. 그것은, 문해학교의 존재가, 해방의 자각과 차별과의 투쟁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내용은, 단순히 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스스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쓰고, 자신들의 부락의 역사를 명확히 하는 것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부락차별의 본질은, 스스로의 생활과 삶을 통해, 스스로의 신체를 통한 구체적 사실을 투영시켜, 중첩시키는 것에 의해서만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성장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차별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에 맞서,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그 안에서야말로, 차별의 본질과 해방으로의 길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해학교는, 인간해방을 위한 해방학교라고 할 수 있다.

(4) 「운동과 교육을 결합하여, 인간을 변혁하는 실천이다.」

일반적으로 문해운동은, 부락해방동맹이 주체가 되어 해 온 부락해방운동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부, 본부 주최의 각종 동원, 집회에서의 보고, 기록, 총괄 등, 이러한 것들 자체가 운동 안에서의 문해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문해운동 속에서 부모들의 교육요구를 결집시켜 행정투쟁으로 발전한 사례, 더 나아가 전국, 광역자치체 차원의 집회에서, 다수의 참가자들 앞에 스스로의 성장과정을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운동 속에서의 교육이며, 운동으로 인한 인간변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문해운동 중에 전국과 광역자치체 차원의 문해경험교류회는, 집회참가 그 자체가 문해학습이라 할 수 있다. 원고 전체를 히라가나로 쓴 보고서를 더듬더듬 천천히 말하면서도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는 발표자, 옆에서도 도와주는 문해강사, 열심히 듣고 있는 참가자들, 드디어 다 읽고 냈을 때 예기치 않게 끓어오르는 박수 - 운동으로서의 문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통해 얻게 된 자신감과 용기가, 스스로 더 쓰고 읽으려고 하는 힘이 되어, 새로운 운동의 질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운동은, 교육의 어머니다」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운동과 교육의 결합의 중요성이다.

(5) 「『해방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집단적 창조적 자기교육 사상의 확립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해방의 학력』이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실천이다.」

「글을 알게 되고 나서, 노을이 특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글을 되찾은 것이 단순히 글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적 감성과 사상, 인간적 문화를 되찾고 높이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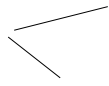
「아름답다는 말,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손바닥에 쓰고 나서 떨어질까봐 손을 짝 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

처음으로 「아름다울 미 (美)」라는 글자를 대면한 사람의 말이다. 이 신선하고 생기있는 감성과 표현. 오히려 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때문에 보지 못하고 놓쳐 온 감성이, 여기에서는 멋지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아는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하고, 능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일 것이다.

문화를 전달하고, 창조하는 것이란,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을 전달하고,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성정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차별과 박해를 당해, 괴로워하면서도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것을 중요시하고, 표현해 나가는 것이, 문화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6) 「지역과 학교, 부모와 교사를 연결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창조하고, 지역과 학교를 변혁하는 실천이다.」

「강사가, 학교의 선생님이라고 해서 망설였다」 - 수강생이 가지고 있는 문해강사에 대한 거부반응이다. 차별의 온상이었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생각일 것이다. 이것은, 문해강사로서 참가하고 있는 교사집단이, 문해운동에서 배운 것을, 지역의 학교에 어떻게 보답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소위, 학교와 지역과의 관계를, 자칫하면 지역을 학교의 보완물로서 인식하는 시점을 변혁하고, 문해를 통해 어떻게 상호의 유기적 연대관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지역으로부터의 문제제기를, 학교로의 개입이라 보는 일부의 입장은 논외일 것이다. 오늘날, 예를 들어 학교교육에서는, 취학 전교육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응해 지역에서는, 취학전교육(보육운동 등) - 저학년 어린이모임·고학년 어린이모임 - 중학교 친구모임 - 고등학교 친구모임 (교장학생) - 대학교 친구모임 그리고 문해학교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취학전

문해학교

저·고학년 어린이모임·중학 친구모임·고교 친구모임·대학 친구모임

이렇게 (문해운동이 지향해 온 것은 :역자주) 지역의 교육체계를 학교 - 어린이회 - 문해로서의 연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교육력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문해학교에서는, 고교·대졸의 지역 어린이들이 강사로서 참가한다던가, 중학교 친구모임, 고교 친구모임이 문해학교와 교류를 꾀하는 등, 문해학교의 구성·내용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운동을 매개로 한 지역판 평생교육 시스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강사로서의 교사의 임무는 중요하다.

번역:김윤정(수도대학도쿄)

翻訳 : 金倫貞 (首都大学東京)